

# 高麗 象嵌靑瓷의 起源과 發展

尹 龍 二

(圓光大教授 美術史)

象嵌靑瓷은 韓國을 代表하는 文化遺産의 하나로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高麗靑瓷의 하나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象嵌靑瓷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對한 起源의 문제와 發展되어가는 구체적 모습의 고찰을 통해 현존하는 수많은 象嵌靑瓷들의 編年을 새롭게 세워보고자 시도하였다.

## 1. 象嵌靑瓷의 起源

高麗 象嵌靑瓷가 언제부터,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는지에 對하여 알려주는 文獻記錄으로 전하는 바는 없다. 따라서 現存하는 遺物을 통해 그 起源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象嵌靑瓷의 起源에 관한 제 견해는 12世紀前半의 仁宗년간과 12世紀後半의 毅宗년간으로 압축되고 있다. 따라서 12世紀 前後半의 高麗靑瓷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해보고 그에 근거한 象嵌靑瓷의 起源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는 것이 方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12世紀 靑瓷에 관한 古墳出土品과 文獻記錄, 靑瓷窯址出土의 靑瓷資料로는 최근 알려진 全州出土의 1105년의 靑瓷瓜形壺와 1108년의 瓷器所에 관한 기록과 1117年 水原石浦里 高麗古墳出土의 靑瓷陰刻鳳凰紋盃, 靑瓷陽刻草花紋盃이 있고 1123년의 「高麗圖經」에 실려있는 靑瓷에 관한 기록들과 최근 새로이 傳으로 밝혀진 1146년의 仁宗長陵 出土의 靑瓷瓜形瓶, 靑瓷方形台, 靑瓷菊形盒, 靑瓷有蓋盃 등이 있다.

또한 1157년의 「高麗史」記錄과 일치된 靑瓷瓦窯址 出土의 靑瓷資料들과 1181年으로 추정된 靑瓷象嵌「辛丑」銘菊牡丹紋硯과 1198年 개풍 월고리 宋子清墓에서 承安三年銘墓誌와 함께 出土된 靑瓷無紋蓋과 白瓷淨瓶의 예가 있다.

그리고 象嵌靑瓷의 가장 확실한 자료인 1202年 明宗 智陵 出土의 靑瓷象嵌荔枝紋대 접 外 一括遺物들이 있고, 이외에 1109年으로 추정되는 靑瓷「己丑」銘廣口瓶과 1141年으로 추정되는 靑瓷鐵畫「辛酉」銘주전자와 1193年으로 추정되는 靑瓷「癸丑」銘大聖持鉢이 있다.

아울러 1990年 10월에 發掘調査된 扶安 鎮西里窯址 出土品과 그동안 文公裕墓 出土로 전하는 靑瓷象嵌寶相花紋盃과 三陟 三和里 高麗古墳 出土의 靑瓷資料가 있다.

① 12世紀 高麗靑瓷의 資料중 최근 알려진 1105년이 하한인 靑瓷참외형壺가 있다. (연대 박물관소장). 이 壺는 外反된 口部에 둥근 몸체를 지니고 몸체에는 여덟곳에 瓜形의 홈을 돌린 풍만한 항아리로, 녹색의 씩워진 유약이 산화되었으며 낮고 넓은 굽을 지녔다. 이 靑瓷壺는 灰黑色의 陶器大盒 內의 中央에 놓여 있었고 그 주변에는 9개의 灰黑色 陶器盒들을 배치하였다. 뚜껑들은 平底접시모양의 陶器들로, 이 大盒안에서 出土된 銅錢이 「海東通寶」로서 사용시기가 肅宗년간인 1097年에서 1105年으로 추정되었다.

이 大盒은 內底 中央에 있는 靑瓷瓜形壺에 화장한 뼈를 담고 그 주변의 盒들에

며, 조 등의 곡식을 담아 기원하던 藏骨容器的 예이다.

따라서 1105년경까지 후햇무리굽甌에서 함께 출토되는 平底접시류의 제작이 이루어졌음과 몸체에 瓜形의 홈이 돌려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세수대야와 같은 뚜껑의 존재를 알게 된 점이다.

②「高麗史」78 食貨志 田制 貢賦 睿宗 3年(1108年)에 보이는 “銅·鐵·瓷器·紙·墨 등 雜所의 別貢을 物色 徵求함이 지나치게 심하므로 匠人이 간고하여 도피하니 담당 官府로 하여금 各所의 別貢物과 常貢物의 多少를 작성하여 상주해서 재결케 하였다”는 기록이다.

高麗瓷器의 제작자는 瓷器所의 匠人들로 1108년에 점점 瓷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그 匠人들이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하는 경향이 생겨나 別貢과 常貢物을 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12世紀初의 瓷器제작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③ 1109년으로 추정되는 靑瓷「己丑」銘廣口瓶(호암미술관 소장)을 들 수 있다. 口部가 廣口로 각이져 넓으며 긴 목에 어깨에서 벌어졌다 서서히 좁아져 내려간 廣口瓶으로 釉는 전면에 얇게 시유되고 灰靑色을 띠고 있다. 굽다리는 안바닥을 깎아 세웠으며, 가는 모래받침으로 받쳐 구웠다. 瓶의 胴部에 陰刻으로 「己丑九月日」銘이 있어 이 瓶의 제작시기를 1109년 혹은 1049년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흘쭉하고 긴 몸체에 가는 모래받침의 흔적으로 보아 전형적인 햇무리굽甌의 시기다음인 후햇무리굽甌의 제작시기와 관련있어 1109년으로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京畿道 水原 長安面 石浦里 高麗古墳에서 政和通寶(1111~1117年)와 함께 출토된 靑瓷 陰刻鳳凰紋甌, 靑瓷 陽刻草花紋甌(國立中央博物館所藏)을 들 수 있다.

靑瓷 陰刻鳳凰紋甌은 外面은 無紋이고 內側面 세곳에 鳳凰紋을 가는 線으로 陰刻한 甌으로 1117년까지 가는 陰刻의 봉황문(아마도 앵무문이었으리라 추정됨)이 존재하여 현존하는 수많은 陰刻의 앵무문의 甌, 접시등과 관련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靑瓷 陽刻草花紋甌의 경우 內面에만 陽刻으로 草花紋이 시문된 甌으로 틀로 찍은 陽刻의 草花紋이 當時 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靑瓷 陰刻봉황문甌의 경우 굽다리에 규석받침의 흔적이 남아있어, 中國 汝官窯와의 관련성이 주목된다 하겠다.

⑤ 高麗 仁宗1年(1123年) 宋나라 使臣의 수행원으로 高麗의 開京에 한달동안 머물다 本國으로 돌아가 1124년에 저술한 徐兢의 見聞錄인 「宣和奉使高麗圖經」에 실려 있는 陶瓷에 관한 記錄들이다.

「高麗圖經」卷第32 器皿條

「陶尊, 陶器色之靑者 麗人謂之翡色 近年以來製作工巧 色澤尤佳 酒尊之狀 如瓜上有小蓋 而爲荷花伏鴨之形 復能作 椀 柶 杯 歐 花瓶 湯盞 皆竊倣 定器制度 故略而不圖 以酒尊 異於他器特著之」

「陶爐, 狻猊出香亦翡色也 上有蹲獸 下有迎蓮 以承之 諸器惟此物最精絕 其餘則越州古秘色 汝州新窯器 大概相類」

위의 기록에서 1123년경의 高麗靑瓷에 관한 몇가지 주목할 점이 발견된다.

첫째로 “금년에 들어와 제작이 공교해지고 광택이 더욱 아름다와졌다”의 해석을 靑瓷제작의 기술이 절정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며 1123년 가까운 시기에 들어 색이 좋아지고 기술이 정교해져 翡色靑瓷의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이 시기의 靑瓷가 越州窯의 古秘色과 비슷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0世紀 五代 越州靑瓷의 釉色은 대체로 胎土의 灰色이 은은히 드러나는 얇은 淡綠靑色의 釉가 일반적으로, 현존하는 靑瓷 陰刻앵무문접시, 靑瓷 陰刻앵무문

盒, 靑瓷油瓶등과 비슷하다.

이들은 1117년의 靑瓷陰刻봉황문罍과 같은 가는 陰刻의 靑瓷로, 이를 근거로 보면, 1123년의 靑瓷들이 靑瓷陰刻菊唐草紋碗, 靑瓷陰刻牡丹唐草紋花瓶, 靑瓷陰刻牡丹唐草紋淨瓶등과 관계가 있다.

즉 1123年頃の 靑瓷는 越州窯인 靑瓷釉色과 紋樣이 비슷한 胎土의 灰色이 드러나는 靑瓷釉이며 바늘과 같은 施紋具로 새긴 가는 陰刻의 정교한 紋樣의 靑瓷들로, 五代 越州窯靑瓷와 같은 앵무문, 花紋등의 靑瓷들로 추정되어 종래처럼 너무 확대하여 대부분의 象形靑瓷, 陰·陽刻靑瓷들을 이 시기로 설정한 것은 잘못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그당시 靑瓷로 제작된 대부분의 완, 접시, 꽃병, 술잔 등이 中國의 일정한 형태의 器皿을 본받고 있고, 酒尊과 狻猊出香만이 다른 그릇과 달리 절묘하다는 기록의 해석이다.

먼저 그동안 「定器制度」를 定窯의 그릇으로 해석해온 것은 잘못이며, 그릇의 정해진 기형의 제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과 「酒尊」이야말로 「梅瓶」을 뜻하는 그당시의 표현으로 현존하는 靑瓷鐵畫牡丹紋瓜形梅瓶에서 보듯 몸체가 참외모양이며 뚜껑이 있는 술항아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狻猊出香을 현존하는 靑瓷獅子꼭지향로(國立中央博物館所藏)로 추정하는 것은 잘못으로, 기록에 의하면 “위에는 쭈그리고 있는 짐승이 있고 아래에는 연꽃으로 이를 받치고 있다”라고 하여 연꽃받침이 없음을 지적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의 靑瓷시기 결정을 靑瓷사자뚜껑 향로를 1123年으로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모든 象形의 靑瓷향로 등을 이시기로 比定하여 왔기 때문이다.

셋째로 그당시의 高麗靑瓷가 汝州新窯器와 비슷하다고 한 점이다. 현존하는 靑瓷대접, 접시, 화형탁잔의 경우 汝窯産의 器皿과 비슷하며, 특히 그당시 中國에서 靑瓷제작시에 硃石받침으로 받쳐 제작하는 것은 官窯인 汝窯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1110年頃に 새로이 北宋의 변경 가까이에 설치된 北宋官窯인 汝窯産의 硃石받침과 器皿이 高麗靑瓷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硃石받침으로 받쳐 구운 靑瓷가 처음 보이는 것은 水原 石浦里 古墳에서 出土된 1117년의 靑瓷陰刻鳳凰紋완으로 이시기 전후하여 高麗靑瓷에 나타나고 있고, 1123년에 徐兢에 의해 汝州新窯器와 대개 비슷하다고 기록되게 된다.

넷째로 1123년의 記錄에는 象嵌靑瓷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이다. 서공이 고려에 온 목적이 宋황제 휘종에게 고려文物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때, 한달간 사신들의 숙소인 順天館에서 지냈던 서공이 고려만의 독특한 象嵌技法을 빠뜨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⑥ 1141年으로 추정되는 靑瓷鐵畫「辛酉」銘주전자로 사진으로만 남아있으나, 몸체에 그려진 鐵畫의 菊瓣紋과 菊唐草紋의 짙은 紋樣이 이 시기의 靑瓷로 주목되는 예이다.

⑦ 傳仁宗 長陵(1146年) 出土의 靑瓷資料를 들 수 있다. 京畿道 長湍郡 長道面에 있는 長陵에서 「皇統六年銘(1146年)仁宗謚冊」과 함께 出土되었다고 전하는 靑瓷瓜形花瓶, 靑瓷方形台, 靑瓷菊形盒, 靑瓷有蓋罍(以上 國立中央博物館所藏) 등이 있다.

靑瓷瓜形花瓶은 몸체가 참외형으로 翡色釉이며, 굽다리에는 일곱곳에 灰白色의 耐火土받침 자국이 있고, 靑瓷方形台는 釉가 전면에 두껍게 시유되었으며 굽다리에 耐火土받침 자국이 남아있다. 靑瓷菊形盒과 靑瓷有蓋罍은 翡色釉로 전면에 곱게 시유되었으며 굽바닥에 硃石받침으로 정교하게 받쳐 구운 흔적이 있다.

淡綠靑色の 翡色釉가 고르게 施釉되어 發色이 깊고 순수하며 水烈이 없다. 胎土는

정제되어 있고 器形은 적정한 비례를 갖고 있다. 紋樣은 드물다.

靑瓷瓜形瓶은 景德鎮窯産의 靑白瓷瓜形瓶에서 배웠으며 靑瓷方形台는 10世紀 五代 越州窯로 부터, 靑瓷菊形盒과 靑瓷有蓋盥은 景德鎮窯産의 靑白瓷에 그 예가 남아있어 그로부터 배운것으로 추정된다.

靑瓷瓜形瓶과 같은 靑瓷陰刻圓紋兩耳瓶, 靑瓷瓶形注子, 靑瓷陰刻牡丹紋瓜形注子和 靑瓷方形台와 같은 靑瓷사자꼭지주전자및 승반, 靑瓷廣口瓶 등이 있으며 靑瓷菊形盒이나 靑瓷有蓋盥과 같은 靑瓷花形접시, 靑瓷圓形접시, 靑瓷托蓋, 靑瓷원승이형연적, 靑瓷瓶(國立中央博物館所藏) 등의 예가 있다.

1123年頃の 翡色靑瓷보다는 釉가 두껍게 시유되고 단정하며 象形의 作品들이 보이는 더발전된 翡色靑瓷의 시기가 1146年頃の 靑瓷로 보이며 이와같은 靑瓷의 작품 중에서 象嵌靑瓷의 예로 보이는 것은 發見된 바가 없다.

1123年, 1146年頃の 수많은 靑瓷접시, 盥, 대접들은 紋樣이 있을 경우 內面에 가는 陰刻과 陽刻의 紋樣이 있거나 外面의 경우 陽刻蓮瓣紋이 있을뿐 內·外面에 紋樣이 있는 예는 없다.

⑧ 象嵌靑瓷의 起源과 관계깊은 資料로 「高麗史」 世家 毅宗十一年八月(1157年)條 “夏四月 丙申朔 關東離宮成宮曰…， 其北構養怡亭 蓋以靑瓷 南構養和亭 蓋以稷…”의 記錄과 이와 부합되고 遺物이 1927年 開城 滿月臺 高麗宮址에서 수습된 靑瓷瓦片들과 1964年, 1965年 國立博物館에서 發掘調査한 沙堂里窯址 出土의 多樣한 靑瓷瓦片들이다.

이들 靑瓷瓦片들은 靑瓷陽刻牡丹紋수막새, 靑瓷陽刻唐草紋암막새를 비롯하여 靑瓷陰刻牡丹唐草紋이 惝차게 施紋된 靑瓷瓦片들로서 약간의 象嵌技法이 施紋된 靑瓷片과 함께 출토되었다. 또한 이들과함께, 靑瓷오리형연적片, 靑瓷三足향로片, 靑瓷陽刻도철문鼎片도 發見되었다.

靑瓷陽刻牡丹紋수막새의 경우 牡丹의 잎줄기까지 陽刻된 정교하고 화려한 문양으로 틀에의해 찍어진 것이며, 靑瓷陽刻唐草紋암막새 역시 화려하고 정교한 唐草紋이 陽刻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와같은 押出陽刻의 靑瓷陽刻蓮池童子紋花形鉢, 靑瓷陽刻波魚蓮花水禽紋花形접시와 靑瓷陽刻도철문鼎등의 陽刻靑瓷가 이 시기의 靑瓷들로서, 특히 유명한 靑瓷透刻七寶香爐(國立中央博物館所藏)가 靑瓷瓦의 제작시기가 비슷하다는 점이다. 象形의 蓮瓣앞에 새겨진 앞맥은 靑瓷瓦의 陽刻牡丹앞맥과 같고, 저부의 가장자리에 두른 화려한 唐草紋과 뚜껑의 가장자리를 비스듬히 깎은 陰刻手法등이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이 향로의 뚜껑 위에 새겨진 透刻의 七寶紋 사이에 白色象嵌의 點들이 찍혀있는 점으로 보아 이 향로가 初期 象嵌靑瓷의 한 예로 보이는 주목되는 작품이다.

또한 靑瓷瓦片들 중 비스듬히 깎은 陰刻手法으로 마치 陽刻의 효과가 있는 특이한 陰刻의 牡丹唐草紋, 蓮花唐草紋, 唐草紋이 수기와의 등에 惝차게 시문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이한 陰刻의 手法은 中國의 定窯白瓷에 보이는 것으로 高麗靑瓷가 이로부터 배운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은 비스듬히 깎은 陰刻의 紋樣이 惝차게 시문되고 綠色이 짙은 靑瓷로 靑瓷陰刻牡丹唐草紋瓢形注子및 승반, 靑瓷陰刻蓮唐草紋「孝久刻」銘淨瓶(日本根津美術館所藏), 靑瓷陰刻鳳凰牡丹唐草紋梅瓶(미국, 프리어미술관소장), 靑瓷陰刻蓮唐草紋注子, 靑瓷透刻陰刻蓮牡丹唐草紋枕(國立中央博物館所藏) 등과 靑瓷陰刻牡丹唐草紋盥(國立中央博物館所藏), 靑瓷陰刻雲龍紋象嵌「尙藥局」銘盒, 靑瓷陰刻蓮唐草紋鉢(영국, 케임브리지대학박물관)

관소장)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靑瓷瓦에 특이한 陰刻의 牡丹唐草紋이 짙게 시문된 甃의 內緣에 白色線象嵌으로 唐草紋帶를 돌린 예가 있으며, 비스듬히 깎은 陰刻手法의 雲龍紋이 뚜껑上面에 짙게 시문된 측면에 白色象嵌으로「尙藥局」銘을 시문하고 있어 주목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靑瓷陰刻蓮唐草紋象嵌「詩」銘瓢形瓶이나 靑瓷陰刻牡丹唐草紋象嵌牡丹紋盒 등이 있다.

즉 象嵌靑瓷의 시작은 1157년 高麗史의 記錄과 개경 만월대 고려궁터, 康津沙堂里 靑瓷瓦窯址에서 出土된 靑瓷瓦에 시문된 陽刻과 陰刻의 정교하고 화려한 靑瓷에 白色線象嵌으로 器面의 일부에 시문되기 시작하면서 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였다고 생각된다. 흥미롭게도 康津沙堂里 靑瓷瓦窯址에서 이들 陰刻, 陽刻, 透刻의 靑瓷片들과 器面 일부에 시문된 약간의 象嵌靑瓷片이 出土되었다는 보고의 기록도 있어 이를 그대로 뒷받침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들 靑瓷瓦들과 함께 出土된 각종 三足향로의 다리片들과 오리연적의 靑瓷片으로 보아 현존하는 수많은 향로와 오리연적 등이 이 시기 전후로 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 사치와 향락을 좋아했던 毅宗年間(1147~1170년)에 화려한 靑瓷로서 陰刻, 陽刻, 透刻, 象形 그리고 象嵌技法의 靑瓷가 채택되기 시작하였음은 충분히 가능한 사실로서, 高麗靑瓷의 뛰어난 名品들이 이 毅宗年間에 제작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主紋樣에 따르는 종속문양으로 화려한 唐草紋帶와 如意頭紋帶, 雷紋帶의 등장과 채택이 이 시기의 靑瓷에 공통으로 보이고 있는데, 靑瓷陰刻蓮花唐草紋「孝久刻」銘淨瓶이나 靑瓷기린뚜껑향로, 靑瓷陽刻도철문鼎 등에 보이는 종속문양의 등장이 주목된다. 또한 小形의 器皿에 硃石받침의 넓은 사용과 大形의 器皿에 粘土섞인 耐火土받침의 흔적이 象嵌靑瓷의 등장과 함께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다.

1990年 10~11月 扶安 鎮西里 14號 窯址 發掘調査결과 퇴적층에서 이와같은 押出陽刻의 牡丹紋접시, 蓮池水禽紋접시, 대접과 靑瓷陰刻蓮花唐草紋瓶片과 함께, 雷紋이 白象嵌으로 시문된 靑瓷象嵌雷紋蓋이 出土되어 위와같은 사실을 뒷받침 해주었다.

象嵌靑瓷의 본격적인 시작과 발전은 1170年 武臣의 亂 이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象嵌靑瓷가 發生했던 1150年代와 1160年代의 毅宗연간에는 陰刻, 陽刻, 透刻, 象形의 靑瓷가 象嵌靑瓷보다 훨씬 많이 제작되었던 것이며, 실제로 高麗靑瓷의 창의적이고 多樣한 器形과 화려한 紋樣, 뛰어난 釉色등이 이 시기에 나타나는 共通된 特色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象嵌靑瓷의 起源은 1105年, 1109年, 1117年, 1123年, 1141年, 1146年の 편년자료에서는 보이지 않고 1157年の 靑瓷瓦窯址에서 發見되는 陽刻, 陰刻, 象形의 靑瓷에서 線象嵌으로 器面의 일부에 다른 陰刻, 陽刻의 紋樣과 함께 사용되기 시작하는데서 비롯하며 실제 靑瓷瓦窯址에서 약간의 象嵌片이 함께 出土되었고, 현존하는 靑瓷遺物 중에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처음에는 陰刻, 陽刻靑瓷보다 적게 사용되었을 것이고, 아마도 靑銅銀入絲蒲柳水禽紋淨瓶(日本大和文華館所藏)과 靑瓷象嵌蒲柳水禽紋淨瓶(간송미술관 소장)과 형태, 문양이 그대로 담고 있는 예가 있으며 銀入絲의 오랜 例중에 1177年の 密陽 表忠寺香爐가 있어 적어도 12世紀後半부터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으리라 짐작된다.

靑瓷象嵌의 起源을 흔히 1159년에 돌아간 傳文公裕墓 出土의 靑瓷象嵌寶相唐草紋甃에 근거를 두어 이甃과 같이 內外面에 양식화된 象嵌紋樣이 이루어 지려면 적어도 30~40

년이 지나야 되는 것이므로 象嵌靑瓷가 仁宗初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것이며, 1124년의 「高麗圖經」에 보이지 않는 것은 徐兢의 체류기간이 한달정도였고 활동범위도 제한되었으며 象嵌靑瓷의 존재가 그의 눈에 띄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기록에 구애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가 있다.

그런데 이미 지적했듯이 傳文公裕墓 出土의 靑瓷象嵌寶相唐草紋盃은 1926年 12月9日 京城의 池內虎吉이란 상인에게서 磨製石劍과 中國陶瓷등 15點의 遺物과 함께 구입된 것으로 國立中央博物館 本館品 10128~10141에 해당되는 것으로 학술적 자료로 받아들이기에는 재고해야될 靑瓷라는 점이며, 오히려 이 文公裕墓 出土品이라 전하는 이 靑瓷象嵌寶相唐草紋盃은 1202年의 明宗智陵 出土의 확실한 발굴품중 靑瓷象嵌荔枝紋 대접과 비교해 볼때 象嵌紋樣의 포치와 靑瓷釉色, 굽의 형태등이 거의 비슷하여 1202年 전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이다.

또한 1157年의 靑瓷瓦窯址 出土의 靑瓷들과 비교해보아도, 紋樣, 釉色, 굽의 형태 등이 차이가 많다는 점이다. 1157年頃의 靑瓷盃은 內面에만 紋樣이 시문되고 있고, 1159年으로 전하는 盃처럼 內, 外面에 도식화된 문양이 나타나고 있지 못하며, 釉色도 綠靑色의 釉에서 透明하게 급격히 변하고 있어, 불과 2년만에 그처럼 변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1159年으로 추정되어온 文公裕墓出土의 靑瓷象嵌寶相唐草紋盃은 상인에게서 구입한 것으로서 학술적자료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고, 확실한 1157年 靑瓷瓦窯址 出土靑瓷나 1202年 明宗 智陵 出土 靑瓷들과 비교해 보아도 1159年으로 보기에 확실하지 않으므로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기준으로 문제점이 있는 靑瓷象嵌寶相唐草紋盃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 象嵌靑瓷의 기원을 12世紀初인 仁宗初年으로 보아온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된다.

또한 1105年의 靑瓷瓜形壺, 1109年의 靑瓷廣口瓶, 1117年의 靑瓷陰刻鳳凰紋盃과 靑瓷陽刻花紋盃 그리고 1123年頃으로 추정되는 靑瓷陰刻앵무문盃, 접시, 1146年 傳仁宗長陵出土 靑瓷瓜形花瓶 등과 비교해 보아도 象嵌靑瓷의 發生을 12世紀前半으로 추정하는 것은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최근 北韓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개성 판문군 진봉리 출토의 靑瓷象嵌盞이 함께 반출된 1017年의 화폐에 의해 象嵌靑瓷의 起源을 11世紀初인 1017年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대한 구체적 출토사항이나 실물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많다. 현재의 靑瓷편년을 기준으로 보아도 11世紀初의 靑瓷에 象嵌技法이 사용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인 것이다.

高麗 象嵌靑瓷의 起源은 靑瓷瓦가 제작되는 1157年전후인 1150年代에 康津 沙堂里窯와 扶安 柳川里窯에서 陰刻, 陽刻, 透刻, 象形의 다양한 靑瓷가 만들어지던 시기에 靑銅器 등에 시문되던 銀入絲手法을 靑瓷에 적용하기 시작하여 처음에는 器面에 陰刻, 陽刻, 透刻의 靑瓷紋樣과 함께 白色線象嵌으로 일부 기면에 施紋하기 시작하였다.

1150年代, 60年代에는 陰刻, 陽刻, 透刻技法의 靑瓷가 象嵌技法의 靑瓷보다 더 많이 제작되었지만 1170年 武臣의 亂이후 점차 象嵌技法의 靑瓷가 더욱 선호되어 활발하게 제작되어 간다.

그동안 象嵌靑瓷 發生에 기준이 되었던 傳文公裕墓出土의 靑瓷象嵌寶相唐草紋盃은 근거의 자료로서 문제가 있으며, 오히려 1157年의 靑瓷瓦窯址 出土 靑瓷와 1202年의 明宗 智陵出土의 象嵌靑瓷의 作品들이 기준으로 타당하다는 점이다.

## 2. 象嵌靑瓷의 發展

象嵌靑瓷의 시작이 1157年 靑瓷瓦가 제작되던 가마에서 陰刻, 陽刻, 透刻技法의 器面에 일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비롯되어 靑瓷陰刻牡丹唐草紋盃, 靑瓷陰刻雲籠紋「尙藥局」銘盒, 靑瓷透刻七寶紋香爐(國立中央博物館所藏)에 보이듯이 綠色이 짙은 翡色靑瓷에 일부 사용되던 것이 1160年代의 의종년간의 象嵌靑瓷 였다고 생각된다.

象嵌靑瓷의 본격적인 시작과 발전은 1170年 武臣의 亂 이후의 明宗년간에 나타나는 것으로 1181年으로 추정된 靑瓷象嵌「辛丑」銘菊牡丹紋硯과 1198年の 宋子清墓에서 出土된 靑瓷盞과 白瓷淨瓶 그리고 1202年の 明宗 智陵出土의 靑瓷자료들을 들 수 있다.

12世紀後半 明宗년간으로 추정되는 靑瓷들은 陰刻技法과 象嵌, 陽刻技法과 象嵌, 透刻技法과 象嵌이 함께 쓰이기 시작하면서, 점차 그릇 전면에 象嵌으로 시문되기 시작한다.

1181年으로 추정되는 靑瓷象嵌菊牡丹紋「辛丑」銘硯(호암미술관 소장)은 머리의 양측면에 象嵌의 菊牡丹紋을, 전면에는 象嵌菊牡丹紋이 있고 후면에는 象嵌의 雲紋을 시문하였다. 상면 주위에는 陰刻의 雷紋帶가, 상면 내저엔 陰刻의 菊花折枝紋을 새겼다. 靑瓷釉는 綠靑色을 띄고 굽다리에는 釉를 닦아내고 粘土가 섞인 耐火土받침으로 받쳐 구웠다. 바닥에 白色象嵌으로 「辛丑五月十日造 爲大口前戶正徐取(?) 夫」의 명문과 「清沙硯壺雙黃何寺」란 陰刻銘이 나있다. 이처럼 1181年頃 靑瓷는 象嵌과 陰刻의 技法이 함께 쓰이면서 발전되어 가고 있었다.

1170年, 80年代의 明宗년간으로 추정되는 예로는 靑瓷陰刻蓮唐草象嵌菊牡丹折枝紋盃, 靑瓷陰刻菊花象嵌雲鶴紋盃(日本 東洋陶瓷美術館 소장), 靑瓷陰刻象嵌牡丹紋盒, 靑瓷陰刻蓮唐草紋象嵌「詩」銘瓢形瓶(國立中央博物館 소장) 靑瓷陰刻牡丹象嵌복사문梅瓶, 靑瓷陰刻唐草象嵌牡丹紋盒과 靑瓷陰刻牡丹象嵌雲鶴紋盃, 靑瓷陽刻牡丹象嵌蓮唐草紋대접(호림박물관 소장), 靑瓷陽刻蓮唐草象嵌牡丹紋銀口대접, 靑瓷陽刻蓮唐草象嵌雲鶴紋盃, 靑瓷陽刻작약象嵌寶相唐草紋접시, 靑瓷陽刻葡萄象嵌童子紋대접, 靑瓷陽刻蓮瓣紋象嵌雷紋馬上杯 등이 있고 全面에 象嵌施紋된 靑瓷象嵌양무문瓢形注子, 靑瓷象嵌牡丹紋주전자, 靑瓷象嵌蓮池원안문淨瓶, 靑瓷象嵌牡丹紋항아리, 靑瓷象嵌牡丹紋盒, 靑瓷象嵌梅竹鶴紋梅瓶, 靑瓷象嵌菊花紋托盞(國立中央博物館所藏)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陰刻과 象嵌이, 陽刻과 象嵌이, 그리고 象嵌 만이 시문된 靑瓷에는 主紋樣이 사실적이고 단순한 포치로 되었으며 牡丹唐草紋, 蓮唐草紋과 함께 雲鶴紋, 牡丹紋, 菊花紋의 시문이 많고, 전면시문에서 회화적인 蒲柳水禽紋, 梅竹鶴紋등이 크게 시문되고 있다. 그리고 종속되는 문양으로 如意頭紋이나 雷紋, 蓮瓣紋, 唐草紋帶가 뒤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하겠다.

靑瓷陰刻蓮唐草紋象嵌菊花紋盃의 경우 內面에 가는 陰刻의 蓮唐草紋과 함께 口緣에 唐草紋帶가 둘러지면서 外面에 菊花折枝紋이 네군데에 등장하며, 釉色은 翡色釉이고 硃石받침으로 받쳐 구웠다. 이것은 靑瓷陰刻牡丹象嵌雲鶴紋盃(國立中央博物館所藏)에서도 그대로 보여져 內面에 雲鶴과 唐草紋帶를, 外面에는 陰刻의 牡丹紋을 네곳에 문양이 없이 나타내고 硃石받침으로 받쳐 구웠다. 이와함께 靑瓷陽刻蓮唐草象嵌雲鶴紋盃이나 靑瓷陽刻蓮唐草象嵌牡丹紋銀口대접, 靑瓷陽刻작약象嵌寶相唐草紋접시(國立中央博物館所藏)에서 內面은 陽刻의 主紋樣과 唐草紋帶가 둘러져있고 外面에는 아직 도식화되지 않은 象嵌의 문양들이 시문되어 나타난다.

이와같은 陰刻·象嵌과 陽刻·象嵌의 대표적인 靑瓷가 靑瓷陰刻象嵌牡丹紋「辛丑」銘硯

루(1181年)로 뒷받침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12世紀後半의 1160年, 70年, 80年, 90年代의 시기는 象嵌靑瓷가 다른 陰刻, 陽刻의 靑瓷와 공존하면서, 처음에는 부분적인 시문에서 점차 內·外面 중 한면에 모두 시문되다가 內外面의 전체에 시문되어간다. 처음에는 사실적이며 단순한 문양으로, 陰刻, 陽刻의 紋樣에서 배워왔으며, 차츰 문양의 구도가 이루어지고 양식화되어 간다.

초기에는 器物에 비해 큰 문양을 등성등성 시문하며, 한편으로 회화적인 문양을 전면 시문해가기 시작한다. 蒲柳水禽紋, 蓮池원앙紋, 梅竹鶴紋이 器面에 장식되기 시작된다.

12世紀後半의 靑瓷釉色은 맑은 翡色의 靑瓷釉를 기본으로 점차 綠色이 짙어가거나, 透明해져가며 釉氷裂이 많이 나타난다. 접시, 완, 대접의 경우 唐草紋帶, 如意頭紋帶, 雲紋帶가 등장하며, 內, 外面에 紋樣이 시문되어 간다. 굽다리는 대체로 「V」字形的 안으로 경사지며, 굽안바닥이 器面보다 낮고, 小形의 器皿에는 좀더 커진 硃石받침의 흔적, 비교적 큰 梅瓶, 瓶, 주전자의 경우에는 粘土가 섞인 耐火土받침으로 바닥의 釉를 훑어 내고 여러곳에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있다.

그동안 1073年으로 추정되어온 靑瓷象嵌「癸丑」銘大聖持鉢(國立中央博物館 所藏)의 경우, 굽다리에 釉를 닦아내고 粘土가 섞인 耐火土 받침(마치 연탄재와같은 받침)으로 받쳐 구운 흔적이 5~6개로 남아 있으며 胴部에 象嵌된 「癸丑年造上 大聖持鉢」로 보아 내만된 器形과 함께 120년이 늦은 1193年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그동안 11世紀末로 추정되어온 三陟郡 北坪邑 三和里 高麗古墳出土의 靑瓷一括遺物들도 12世紀後半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三和里 古墳 出土의 靑瓷陰刻蟠龍紋蓋托의 경우 전에 시문된 비스듬히 깎은 특이한 陰刻의 蟠龍紋과 雷紋이 靑瓷瓦와 관련하여 1160年代로 추정해 볼 수 있으며 靑瓷陽刻 도철문항로의 경우 外面에 시문된 陽刻의 도철문과 唐草紋帶가 역시 靑瓷瓦와 관련하여 1160年代로 비정해 볼 수 있으며, 靑瓷타구의 경우 1202年의 明宗 智陵出土의 靑瓷陰刻牡丹紋타구 보다는 약간 선행하는 것으로 粘土가 섞인 耐火土받침으로 받쳐 구운 흔적이 있어 역시 1150年代이후로 볼 수 있다.

또한 靑瓷陽刻雲鶴紋盃의 경우 綠色이 짙고 粘土가 섞인 耐火土비짐 받침으로 구운 예이며, 明宗 智陵 出土의 靑瓷陽刻雲鶴紋盃와 비슷하여 12世紀後半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白瓷淨瓶(2點)과 白瓷鐵畫唐草紋梅瓶의 경우 개풍군 영북면 율고리 宋子淸墓에서 出土된 白瓷淨瓶과 비슷한 형태로서 12世紀後半에 근거를 둘 수 있다.

특히 1170年으로 추정되는 靑瓷鐵畫「庚寅」銘唐草紋梅瓶과 이 白瓷鐵畫唐草紋梅瓶과 흡족해진 몸체 등이 粘土가 섞인 耐火土빛음 받침의 흔적과 함께 12世紀後半 1170年전 후 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1073年으로 추정되어온 靑瓷象嵌「癸丑」銘鉢은 1193年으로, 11世紀末로 추정해온 三陟 三和里 高麗古墳 出土의 靑瓷一括遺物들도 1160年, 70年을 中心으로 하는 12世紀後半으로 수정되어야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靑瓷鐵畫唐草紋「庚寅」銘梅瓶도 1110年이 아니라 1170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象嵌靑瓷의 본격적인 發展은 崔氏武人政權시대의 崔忠獻, 崔瑀, 崔沆으로 이어지는 13世紀前半의 高宗년간으로 보여진다. 1170年 武臣의 亂이후 정권을 잡은 武人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나 쉴새없이 정권이 교체되다가 1196年 崔忠獻에 의해 정권이 안정된 후 4代 62년간 崔氏政權이 확립되어 다스려간 武臣집권 시대였다.

13世紀初의 代表的인 陶瓷資料로는 1197年 王에서 물러나 1202年 돌아가신 明宗



智陵에서 出土한 12點의 靑瓷들이다. 靑瓷象嵌荔枝紋대접, 靑瓷象嵌菊花紋접시, 靑瓷象嵌菊花紋花形접시, 靑瓷象嵌花紋八角접시의 象嵌靑瓷 4點과 陰刻, 陽刻의 靑瓷陰刻連瓣紋盤, 靑瓷陰刻牡丹紋타구, 靑瓷陽刻雲鶴紋盤, 靑瓷陽刻牡丹紋花形접시, 靑瓷陽刻如意頭紋접시, 靑瓷접시 3點 등으로 1915年 조선총독부박물관의 今西龍博士에 의해 京畿道 長湍郡 長道面 杜梅里 智陵洞에 있는 明宗의 智陵에서 발굴조사하여 出土된 귀중한 一括遺物이다.

智陵 出土의 靑瓷象嵌荔枝紋대접의 경우(國立中央物館所藏) 내만된 넓은 口部와 둥근 몸체, 한층 밝아진 透明한 靑瓷釉, 象嵌靑瓷의 경우 內外面에 짝차게 布置된 施紋으로 內底에 좁은 圓刻이 깎이고 內側面 다섯곳에 활짝 핀 荔枝紋을 白象嵌으로 나타내고 內緣에는 날렵한 唐草紋帶를 돌렸다. 外面의 外緣에 드문드문 雲紋과 唐草紋帶를 돌리고 外側面에는 다섯곳에 흑백의 2중원안에 한송이 牡丹과 그 사이 器面에 역상감된 寶相唐草紋帶를 시문하였으며 그 아랫면으로 한송이 국화꽃을 다섯곳에 배치하여 시문하였다. 굽다리는 안으로 경사져 굽바닥이 낮으며 珪石받침으로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靑瓷象嵌菊花紋접시의 경우 外反된 角접시로 內底 中央에 국화꽃 한송이를 그리고 그 주위에 2중원과 如意頭紋帶를 돌렸다. 內側面에는 唐草紋帶를 外面에는 菊花꽃송이를 네곳에 布置 하였다.

釉色은 灰靑色으로 透明한 釉가 시유되었으며, 珪石받침으로 정교하게 제작되었다.

逆象嵌된 內外面 배치, 맑고 透明한 靑瓷釉와 珪石받침의 흔적이 동일하다. 이처럼 완성되고 樣式화된 象嵌靑瓷의 전형이 1202年 智陵 出土의 學術發掘調査된 資料로서 가장 주목되는 근거있는 자료이다.

아울러 12點의 靑瓷 中 純靑瓷가 8點이라는 사실은 1202年 당시에도 無紋, 陰刻, 陽刻의 靑瓷가 계속 쓰이고 있었고, 象嵌靑瓷보다 2/3정도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그동안, 대부분의 象嵌靑瓷들을 12世紀中葉으로 편년지어 온 잘못은 이제는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이미 그 근거가 되어왔던 傳文公裕墓 出土의 靑瓷象嵌寶相花紋盤은 이미 지적해온데로 그 근거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며, 오히려 1157年の 靑瓷瓦, 1181年の 靑瓷벼루, 1202年の 靑瓷象嵌荔枝紋대접의 자료에 근거해야 되리라 생각된다.

傳文公裕墓 出土의 靑瓷象嵌寶相花紋盤은 1202年の 智陵 出土의 靑瓷象嵌荔枝紋대접과 器形, 紋樣, 釉色, 굽, 燒造方法등을 비교해보면 同一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 1202年 前後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작품일 뿐이다.

따라서 그동안 12世紀中葉·後半으로 비정되어 왔던 수많은 象嵌靑瓷들은 당연히 13世紀前·後半으로 시기를 고쳐야 될 것이다.

象嵌靑瓷의 全盛期 13世紀 前後半 象嵌靑瓷의 代表的인 資料들로 추정되는 것은 扶安 柳川里窯産 高麗象嵌靑瓷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1920年代 이후 조사 수집되어 1983年 梨大博物館 소장품으로 전시된 것으로 13世紀 前後半을 中心으로 12世紀 後半 靑瓷들을 포함하고 있다.

각종 透刻의 墩과 臺의 靑瓷片들, 托蓋, 대접, 접시, 瓶, 梅瓶등의 陰, 陽刻 靑瓷들, 象嵌技法으로 완성된 靑瓷板, 梅瓶, 壺, 盒, 瓶, 托蓋, 鐵彩, 鐵白畫, 銅彩 등이 시문된 靑瓷들과 陰, 陽刻, 象嵌의 白瓷 등 多樣하게 出土되었다.

象嵌대접 중 智陵 出土의 靑瓷象嵌荔枝紋대접과 傳文公裕墓 出土의 靑瓷象嵌寶相唐草

紋盃과 同一한 片들이 出土되고 있어 주목되었고, 이들이 扶安 柳川里窯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많아졌다.

13世紀前半으로 추정되는 靑瓷板들의 경우 직사각형, 마름모꼴 등 여러가지가 있으며 모서리를 깎아만든 얇은 板이다. 中心에 稜花形의 구획을 두르고 그안에 菊花 牡丹紋을 도안화 하고 그 주위를 직사각형으로 구획하여 雲鶴과 菊花紋 그리고 如意頭紋과 唐草紋帶를 두르고 있다. 釉色은 綠色이 짙게 감도는 透明釉가 시유되어 있다.

梅瓶의 경우 胴上部가 크게 벌어지고 저부가 좁은 梅瓶들로 위, 아랫면에 雷紋, 蓮瓣紋帶가 시문되며 胴部에는 피어오르는 듯한 구름과 鶴을 黑白象嵌으로 나타내거나 人物紋, 葡萄童子紋 등이 도안화되거나 회화적으로 자유롭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어깨로부터 크게 벌어져 S字曲線을 이루는 胴體에 윗면에는 확대된 如意頭紋帶를, 아랫면에는 蓮瓣紋帶를 돌리고 그 사이면에 雲鶴을 2중 圓內와 圓外에 꼭차게 배치한 저 유명한 靑瓷象嵌雲鶴紋梅瓶(간송미술관 소장)과 靑瓷象嵌葡萄紋梅瓶 등이 13世紀前半의 代表的인 靑瓷들로서 扶安 柳川里窯에서 제작되었다고 추정된다. 또한 13世紀後半으로 보여지는 1m에 달하는 크기의 靑瓷象嵌波龍紋梅瓶片도 出土되어 高麗靑瓷가 작지만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扶安 柳川里窯産의 靑瓷는 기벽이 두꺼워져가고 있으며 굽다리의 硃石받침도 커져가고 말끔히 마무리 하지 않는 예가 있다. 그리고 큰 기형에는 粘土가 섞인 모래 빛음 받침으로 구운 梅瓶, 壺, 주전자의 예가 많다. 釉色은 綠色이 짙은 靑瓷釉와 透明한 靑瓷釉가 함께 주류를 이루고 있다.

武臣政權 下에서 정치의 안정은 있었으나 文化의 內的인 발전보다 外的인 장식에 더 치중하였으며 그 결과 靑瓷의 翡色 보다는 紋樣에 치중하는 모습을 가져온다. 또한 南宋과의 국교단절로 인한 文化자극의 부족은 高麗靑瓷 자체의 발전을 거듭하게 하여 象嵌靑瓷의 급격한 확대와 발전을 가져오며, 紋樣과 器形에서 高麗的인 모습으로 發展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13世紀 靑瓷자료 중에는 1257년에 죽은 崔沆의 墓에서 誌石과 함께 出土되었다고 전하는 靑瓷陽刻蓮瓣紋銅彩瓢形주전자(호암미술관 소장)가 있다. 작고 큰 표주박모양으로 몸체의 外面에는 蓮꽃잎을 陽刻하였으며, 童子와 연꽃줄기를 중간에 부착시킨 주전자이다. 釉色은 綠色이 짙은 靑瓷釉이며 굽다리에는 粘土가 섞인 모래빛음 받침으로 구웠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연꽃잎에 붉은 銅彩를 한 비례가 적정한 주전자이다.

이와함께 13世紀後半의 代表的인 靑瓷로 靑瓷象嵌葡萄童子紋銅彩瓢形주전자 및 승반(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靑瓷象嵌蓮瓣紋梅瓶등을 들 수 있다.

이 표주박주전자는 1257년의 靑瓷주전자와 형태가 유사하고, 전면에 시문된 葡萄童子紋이 灰綠褐色의 釉色과 함께 어울리고 있으며 승반과 함께 高麗的인 器形과 紋樣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알려진 靑瓷象嵌蓮瓣紋梅瓶의 홀쭉해지며 유려한 곡선을 보여주고, 몸체에 시문된 연꽃잎의 중첩된 모양은 1257년의 靑瓷陽刻蓮瓣紋銅彩瓢形주전자의 紋樣에 있어 닮고 있다.

梅瓶에 있어 靑瓷象嵌菊牡丹雲鶴紋梅瓶(호암미술관 소장) 처럼 口部가 넓어지고 저부가 크게 外反되었으며, 胴體에 도식화된 문양이 보여 유명한 靑瓷象嵌雲鶴紋梅瓶의 다음시기의 모습임을 알려주고 있다.

이 시기에 大形의 靑瓷들로 많이 제작되어 1m에 달하는 扶安 柳川里窯産의 靑瓷象嵌波龍紋梅瓶을 비롯하여 靑瓷象嵌雲鶴牡丹紋花盆, 靑瓷透刻墩(梨大博物館所藏) 등 큰 器形의 靑瓷가 많이 제작되게 된다.

또한 1289年~1297年頃에 제작되었던 畵金靑靑에 관한 高麗史의 記錄들과 부합되는 畵金靑靑로 開城 滿月臺宮址에서 發見된 靑靑象嵌猿兔紋畵金扁壺가 있다.

이 畵金靑靑扁壺는 菱形의 象嵌 紋樣帶를 구획한 것과 扁壺의 器形 그리고 양쪽 옆면에서 시문된 象嵌寶相唐草紋의 새로운 紋樣의 등장, 저부에 시문된 굵직한 蓮瓣紋帶 등과 淡靑色으로 바뀌고 있는 釉色, 두꺼운 器壁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예로 靑靑象嵌瓦屋人物紋扁壺, 靑靑象嵌雲鶴紋扁壺(간송미술관소장) 등이 있어 扁壺類가 유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1270~73年 三別抄에 의해 항쟁이 계속되다 파괴되었던 全南 珍島 龍藏城內 유적에서 出土된 象嵌靑靑들이 있다.

종래 象嵌靑靑의 제작이 1231년에 몽고의 침입으로 급속히 쇠퇴하였을 것이라는 선입견은 잘못된 것으로 40여년간에 걸친 몽고의 침입시기에도 象嵌靑靑의 꾸준한 발전과 제작이 이루어졌음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몽고의 침입이 전국토에 걸쳐 이루어 졌던 것이 아니고 따라서 康津과 扶安의 窯에서는 계속 제작되어 西海를 통해 海路로 강화도 최씨정권에 꾸준히 수납되어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점이 1257年の 靑靑陽刻蓮瓣紋銅彩瓢形注子와 1270~73年頃으로 추정된 진도 용장성유적 출토의 象嵌靑靑들 그리고 1289~97年頃의 畵金靑靑의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象嵌靑靑의 發展이 13世紀前後半에 걸쳐 꾸준히 지속되었고 무엇보다도 高麗的인 器形과 紋樣에서 뛰어난 발전을 보였으며, 이러한 모습을 扶安 柳川里窯産의 靑靑 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世紀後半의 象嵌靑靑의 전통은 14世紀前半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14世紀前半은 元에 세력의 배경을 둔 權門世族에 의해 이끌어지던 시기로 武臣政權이 붕괴된후 대두된 이들 權門世族은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정치권력을 장악하였으며 경제적으로 광대한 農莊을 소유하는 大土地所有者였다.

또한 이 시기에 高麗와 元과의 긴밀한 관계는 王室과 상류층을 中心으로 元의 法俗, 의복, 변발, 혼인을 통해 깊어 갔으며 元으로부터 性理學이 수용되고 새로운 佛敎(라마교)가 받아들여진다. 貴族佛敎로서 이 시기에 뛰어난 高麗佛畫의 제작과 高麗寫經의 제작유행으로 國內外에 많은 예가 남아 있음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시기의 靑靑에 있어 梅瓶이 줄어들고 측면이 편명한 廣口扁壺들이 많이 만들어지며 대접은 底部가 깊어지고 각이 진 조그만 접시류가 많아 졌으며 口部가 내만된 器形이 많아진다. 기벽은 두꺼워지고 釉色은 淡靑色, 灰靑色釉로 바뀌고 있다.

蒲柳水禽紋, 雲鶴紋, 荔枝紋, 牡丹紋, 菊花紋 등이 그대로 쓰이고 있으나 간략해지고 雲鶴紋의 경우 雲紋이 兩點紋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굽다리는 두껍고 굽안바닥에 굵은 硃石받침으로 받쳐 구워지며 굽바닥을 露胎하여 鐵褐色이 드문 드문 드러난다.

14世紀前半으로 추정되는 干支銘 象嵌靑靑의 구체적 모습을 살펴보면 靑靑象嵌蒲柳水禽紋「己巳」銘대접은 內底에 圓刻이 없고 如意頭紋帶가 둘러졌으며 主紋樣으로 버들, 갈대가 대칭으로 간략하게 표현되었고 그 사이에 오리가 놀고 있다. 口緣은 唐草紋帶는 斜線처럼 간략하게 표현되고 굽은 낮은 형태의 모래받침으로 되었다. 「己巳」銘대접 중 牡丹唐草紋이 해바라기 꽃의 변형처럼 큼직하게 黑白象嵌으로 된 예가 있다. 1987年 忠南 保寧 竹島앞바다에서 40여점에 달하는 「己巳」銘象嵌靑靑의 대접, 접시들이 발견되었다.

靑靑象嵌蒲柳水禽紋「庚午」銘대접은 내만된 낮은 대접으로 內底에 黑象嵌으로 表記하고 그 주위에 如意頭紋帶를, 內側面에는 대칭으로 연못가의 버드나무와 갈대 오리를

布置하였고 外面에는 唐草紋帶와 蓮瓣紋帶를 간결하게 나타내었는데 唐草紋帶는 사선무늬로 간략화되어있다. 이들 內底圓刻이 없고 운두가 낮은 대접은 內底가 圓刻이 깎이고 운두가 높은 대접들과 주류를 이루며 中形, 小形의 예들도 있으나 象嵌紋樣의 포치는 同一하다. 釉色은 灰靑色系의 靑瓷釉가 얇게 시유되었다. 「己巳」銘대접과 비슷하며 이러한 대접 外에도 각접시, 둥근접시, 향완 등이 있으며 간략화된 唐草紋帶와 넓고 낮은 굽의 형태가 특징이다.

「壬申」銘대접, 「癸酉」銘대접, 「甲戌」銘대접등 도 同一한 작품이다.

「壬申」銘菊花紋八角접시는 간략해진 菊花에 모래받침으로 받쳐 구웠다.

「丁亥」銘八角접시는 外面의 八角面마다 2송이의 국화꽃을 시문하였으며 낮은 모래받침의 굽으로 몸체가 높아졌다.

「至正」銘象嵌靑瓷접시 片은 黑象嵌으로 시문되고 그 주위로 2중원을 돌리고 如意頭紋帶를 돌린 角접시로 보인다. 굽은 露胎된 面이 있고 모래받침으로 되어 「丁亥」銘과 비슷하다. 그의 「乙未」銘象嵌靑瓷片이 최근에 발견되었다.

康津 沙堂里窯址 퇴적층에서 「至正」銘과 「丁亥」銘이 함께 나왔고 다른 퇴적층에서는 「己巳」「庚午」「壬申」「癸酉」「甲戌」「壬午」銘이 함께 發見되어 1347년의 丁亥銘象嵌靑瓷片을 기준으로 할때 器形, 紋樣, 釉色, 굽, 燔造方法 등에 있어 거의 비슷하여 1329~1347年 사이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종래 干支銘象嵌靑瓷들을 13世紀後半인 1269年~1287年으로 比定해온 것이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대체로 象嵌靑瓷가 1231년의 몽고침입후 급격히 쇠퇴하였기 때문에, 13世紀後半頃에 干支銘象嵌靑瓷가 제작되었다는 것으로 근거제시가 불확실하다.

그리고, 1290年代의 靑瓷象嵌猿兔紋畫金扁壺의 측면에 해바라기 꽃처럼 보이는 牡丹唐草紋의 경우, 해바라기 꽃처럼 활짝핀 꽃에 작은 꽃술이 象嵌되어 있고 이와 유사한 것으로 靑瓷象嵌雲鳳紋花形대접(國立中央博物館所藏)과 靑瓷象嵌牡丹紋壺의 측면에 보이는 해바라기 꽃처럼의 牡丹唐草紋으로 보아 늦어도 1290~1300年頃の 象嵌靑瓷로 보인다. 그런데, 靑瓷象嵌牡丹唐草紋「己巳」銘대접(國立中央博物館所藏)의 경우 牡丹唐草紋과 唐草紋帶 등이 간략하게 되었을 뿐아니라 앞의 대접과 釉色, 굽처리 등을 비교해보아도 이 「己巳」銘象嵌靑瓷대접이 앞설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 己巳銘象嵌靑瓷대접은 1365년의 靑瓷象嵌牡丹唐草紋「正陵」銘대접에 보이는 더욱 흐트러지고 간략화된 牡丹唐草紋과 唐草紋帶, 釉色, 굽의 형태, 燔造方法등을 비교해 보면 1365年 「正陵」銘象嵌靑瓷대접보다는 앞서는 것이다.

다시말해 1257년의 靑瓷陽刻蓮瓣紋銅彩瓢形주전자와 1270~73年頃の 진도 용장성출토의 象嵌靑瓷片들 그리고 1289~1297年頃の 靑瓷象嵌猿兔紋畫金扁壺의 象嵌紋樣, 靑瓷釉色, 굽 등을 干支銘象嵌靑瓷대접인 靑瓷象嵌牡丹唐草紋「己巳」銘대접片이 앞설수 없으며, 1365년의 正陵銘靑瓷象嵌牡丹唐草紋대접보다는 앞서는 것이 확실하므로, 「己巳」銘과 같은 干支銘象嵌靑瓷들이 14世紀前半인 1329年에서 1347年간의 象嵌靑瓷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최근 발견된 「乙未」銘象嵌靑瓷접시 片은 U字의 각진 굽다리와 모래받침의 흔적, 灰靑色의 釉色들과 같은 것으로 그사이인 「1355年」으로 추정하는 것이 알맞다는 것이다.

따라서 「己巳」銘은 1329年 忠肅王 16年으로, 「庚午」銘은 1330年 충숙왕 17年으로 「壬申」銘은 1332年 後忠肅王1年으로, 「癸酉」銘은 1333年 충숙왕2년으로, 「甲戌」銘은 1334年 충숙왕3년으로 그리고 좀 떨어져서 「壬午」銘은 1342年 忠惠王 3年으로, 「丁亥」銘은 1347年 충목왕3年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14世紀後半은 元·明의 교체가 이루어진 격동의 시기로 權門世族에 도전하는 새로운 社會勢力이 대두하였는데 이들이 바로 新興士大夫였으며 이들은 권문세족의 정치권력 독점과 농장확대에 따른 政治, 經濟, 社會的 혼란을 시정하기 위하여 改革政治를 주장하였다. 이들은 地方의 鄉吏 출신이 많았으며 점차 中小地主로 성장하여 과거를 통하여 中央의 관리로 진출하여 王權강화를 추진하는 공민왕때 그들이 개혁정치를 추진해 갔으며 결국 新興武人들의 협력으로 高麗王朝에 대신하여 朝鮮王朝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등장하는 신흥사대부들의 요구에 따라 靑瓷에 있어 實生活에 널리 쓰여질 수 있도록 實用的인 그릇의 多量生産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이들의 관심은 때마침 왜구들의 침략으로 해안가에서 사람이 살 수 없고 조운을 통해 開京에 운반되던 稅船이 왜구들의 습격을 받아 조운이 막히므로 陸路를 통한 陸運이 요청되던 때였다.

康津, 扶安의 海岸가에 위치해 있던 象嵌靑瓷의 가마들은 왜구들의 침략으로 파괴되고 그리하여 이들 새로운 지배세력의 견해와 요구에 따라 전국 내륙지방 곳곳에 가마가 설치되기 시작하고 이러한 변화의 기반이 확대되어 나타난 것이 조선초의 世宗實錄地理志의 32개소에 달하는 전국의 陶瓷所의 가마들이었던 것이다.

1365年の 靑瓷象嵌牡丹唐草紋「正陵」銘대접과 1388年の 靑瓷象嵌重圈紋대접의 예가 있다. 「正陵」銘대접은 干支銘의 象嵌靑瓷보다 간략해져가고 主紋樣으로 특이한 牡丹唐草紋을 內側面 네곳에 布置시킨 형태로 이후의 대접紋樣의 주류를 이루게 된다. 靑瓷象嵌重圈紋대접 역시 더욱 간략해진 2중의 線象嵌으로 굵은 모래받침으로 받쳐 구운 것으로 14世紀末 15世紀初의 가마터에서 간략해진 象嵌紋樣의 器皿과 함께 發見되어 주목된다. 이러한 象嵌靑瓷의 양상은 곧 이은 朝鮮時代 粉靑瓷 제작의 기반을 이루게 된다.

### 〈參考文獻〉

1. 崔淳雨, 「高麗陶瓷의編年」 世界陶瓷全集18, 高麗, 東京, 小學館, 1978.
2. 崔淳雨, 「高麗靑瓷瓦」 美術資料13, 國立博物館, 1969.
3. 鄭良謨, 「高麗陶瓷의窯址と出土品」 世界陶瓷全集18, 高麗, 東京, 小學館, 1978.
4. 鄭良謨, 「靑瓷象嵌發生의 側面的考察」 國寶3, 靑瓷, 藝耕出版社, 1983.
5. 鄭良謨, 「三陟北坪邑三和里出土 高麗時代遺物一括」 考古美術 129, 130, 韓國美術史學會, 1976.
6. 尹龍二, 「高麗陶瓷의 變遷」 潤松文華31, 靑瓷, 韓國美術研究所, 1986.
7. 尹龍二, 「高麗陶瓷의 窯址의 研究」 考古美術 171, 172 韓國美術史學會, 1986.
8. 尹龍二, 「干支銘象嵌靑瓷의 製作時期에 關하여」해강도자미술관 2冊, 1991.
9. 梨大博物館, 「扶安 柳川里窯産 高麗陶瓷」 梨大博物館特別展圖錄 1983.
10. 野守健, 「高麗陶瓷の研究」 1944, 清閑舍.
11. 閔敬敏, 「高麗象嵌靑瓷의 成立과 展開에 關한 研究」 1990, 梨大大學院論文.
12. 國立中央博物館, 「高麗靑瓷名品特別展」 1989, 通川文化社.
13. 姜敬淑, 「韓國陶磁史」 一志社, 1989.
14. 佐藤雅彦, 「中國陶瓷史」 東京, 平凡社, 1982.
15. 李秉昌, 「韓國美術蒐選」 東京大出版部, 1978.